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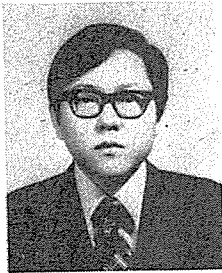
참관기

# 대한기생충학회 春季학술발표회

1982년도



## 주 경 환



대한기생충학회 1982년도 춘계 학술발표회가 지난 4월 30일(금) 전남 광주시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학회는 9시 50분 이순형 학회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오전중에 12개의 갑진, 그리고 정성과 노력이 끈적끈적하게 묻은 연제의 발표가 있었고 점심식사후에는 우리나라의 간흡충증과 폐흡충증을 주제로 심포지움이 열려 4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학회장을 꽉매운 의사, 약사등의 청중을 매료시켰다. 심포지움이 끝난 오후 5시부터는 서독 Bayer 약품의 P. Andrews 박사가 흡충류에 대한

Praziquantel의 작용기전이 라는 제목으로 초대강연을 하여 학회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 이순형 학회장님은 인사말씀에서 대한기생충학회가 이제 성년이 넘어 이와같이 좋은 시설의 회장에서 열띤 토론을 벌일 수 있게 된 것을 사축해야할 일이나 옷도 옷이지만 그 옷을 입는 사람이 더 성숙하여 옷에 걸맞는 몸을 만들어야겠다고 하여 초라한 내 자신을 되돌아 보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

이번학회는 연제수 자체는 많지 않았으나 학문적으로는 가치가 높았던 것으로 생각되며 열띤 질문과 보충설명으로 과거에 예가 없을 정도로 알찼던 학회로서 기생충학 및 의학발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연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대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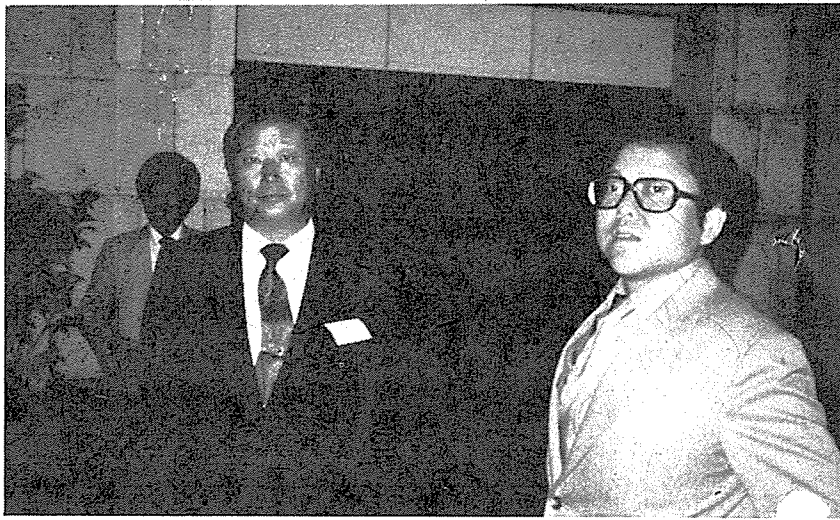


사진 = 회의장에서 임한중교수(左)  
와 필자(右)

음과 같다.

선천성 *Toxoplasma* 증의 실험적 연구에 있어서는 임신된 마우스의 피하에 *Toxoplasma gondii* RH주를 주입하여 감염시켜서 마우스 모체의 간장과 비장에서 원충충체를 검출함으로써 실험동물 마우스를 사용한 선천성 *Toxoplasma* 증의 가능성을 보고하였고 특히 임신 전반기까지의 감염에 있어 그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였다.

서울적십자병원 일반환자에 대한 *Toxoplasma* 항체가에서는 무작위로 추출한 874 명에 대한 Latex 응집반응결과 7.2%의 양성율을 보고하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Toxoplasma* 증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본 연제에 대하여 임한중 교수님은 일본 Eiken에서 공급 받은 *Toxoplasma* MT(E-ST06)의 신뢰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

고 최 원영 교수님도 비슷한 의견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빠른 시간내에 확인을 하여 진단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 같다.

한편 전남주민의 장내원충류 감염실태조사보고에 의하면 전체 원충포낭 양성율은 10.9%로서 *Entamoeba histolytica*가 1.4%, *Giardia lamblia* 1.8% 등이며 성에 따라서는 남자 7.6%, 여자 14.6%이고 포낭양성율이 도시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낮으며 40대 이후의 여성인구에서 감염율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이 연제에 대하여 소진탁, 최동익 교수님은 *E. histolytica*에 있어서 Small strain과 large strain의 구별이 필요함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간흡충에 대한 Praziquantel의 치료효과에서 임한중 교수님은 Praziquantel이 체중 kg 당 25mg

의 용량을 1일 3회 2일간 복용시키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완전치료가 가능하나 집단치료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난점이 많으므로 Pr-aquintel 을 단회 혹은 2회 복용시켜 그 치료효과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40 mg/kg 단회 투약에 있어서는 21.7%가 완전치료되었고 총란감소율은 89.1%이었으며 30 mg/kg씩 2회 투약한 군에서는 59.0%가 완전치료되고 95.2%의 총란감소율을 나타내어 30 mg/kg 2회투여군에 있어서 더 좋은 치료효과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 약제가 곧 시판될 예정에 있고 또한 보사부에서 집단치료를 계획하고 있어 가장 시기적절함, 그리고 임상적인 면에서 가장 필요한 데이터를 제시한 것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와는 반대로 과거에 간흡충증의 치료제로 소개되었고 최근 시중 약국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기도 하는 Niclofolan (Bilevon)의 중독 1례가 보고되어 눈길을 끌었는데 홍성태 선생등의 보고에 따르면 격일로 11번에 걸쳐 총 470 mg의 Niclofolan을 복용한 사람이 갑자기 심한 구토, 오심, 어깨의 통증, 시력장애등이 생겨 복약을 중단하였고 곧 이 증상이 더 심해지고 땀이 많이 나기 시작하여 입원하게 되었으며 검사결과 뇌압이 상승하고 시신경유두의 경계가 일부 불명해진 것이 관찰되었다고 한다.

이 환자는 입원도중 한차례의 경련발작도 있었으나 집중적인 치료로 약 3개월 후에 완치되었다고 한다. 간흡충증에 있어서 niclofolan의 약용량은 체중 1 kg 당 2 mg씩 격일 투약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 약국에서 동물에 쓰이는 niclofolan을 자기들 나름대로의 처방으로 투약하다가 이러한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이며 차제에 재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한편 조승열 교수님등은 효소면역진단법(ELISA)를 이용하여 페리스토마에 대한 면역진단을 실시하였는데 반응감도(Sensitivity)는 총란양성자 21예중 18예가 양성이어서 86%이었고 특이도(Specificity)는 비감염자 66예 모두가 음성이어서 100%이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방법은 치료받은 환자에서의 반응음성전환기간에 대한 자료만 보강하면 페리스토마종의 개별진단 및 집단검정에 유용한 것이라고 한다.

오후에 계속된 심포지움은 한국 바이엘약품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는데 김동찬 박사님(국립보건연구원)이 간흡충증의 역학을, 민득영 교수님(연세의대)이 간흡충증의 증상과 진단을, 임한중 교수님(고려의대)이 간흡충증의 치료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폐흡충증에 대하여

여는 조승열 교수님 (중앙의대)이 역학을, 최원영 교수님 (카톨릭 의대)이 증상과 진단을 그리고 임경일 교수님 (한양의대)이 치료에 대하여 발표하여 이 자리에 모인 300여명의 전 남북 지역 의사들의 관심을 모았다.

P. Andrews의 초청강연이 끝난 후 한국 Bayer 약품의 공동대표이사인 Reinhard Bauer 씨는 오랜시간 계속되는 강연, 슬라이드 영상등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원이 열심히 듣고 토론하는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학술부를 이끌고 계신 조승열 교수님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회의장내에 불

이 슬라이드에 맞추어 제때에 켜고, 꺼지지 않았다는 점, 임한중 교수님의 심포지움 주제발표 때에 회원들에게 한마디 양해도 구하지 않고 나타나 카메라 라이트를 방공 조명 등처럼 쏘아대던 KBS의 카메라맨들 등등의 진행상의 몇몇 문제점들은 옥속의 애교있는 티로서 굳이나 무라코 싶지만은 않은 심정이다.

다음 추계학회에서도 이번 학회 못지 않은 많은 참여와 진지한 토론으로 우리나라의 기생충학 및 의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비는 마음 간절하다.

〈필자=고려의대 기생충학

전임강사·의박〉

## 토막상식

### ◇땀띠



염분은 체내에서 흡수가 안되고 땀이 되어서 몸밖으로 나가는데

그 염분이 피부를 자극하여 땀띠가 된다. 그러므로 땀을 유난히 많이 흘리는 사람은 염분을 과잉으로 섭취하지 않는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름에는 열칼로리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기름기가 많은 식품은 제한하고 소화가 잘되는 생야채를 많이 먹도록 한다. 땀띠·습진 등 열기쉬운 피부에는 생야채와 같은 알칼리성 식품을 많이 먹는게 좋다.